

잡아함 100. 불타경

날짜: 6월 19th, 2024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729>

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시었다. 때에 어떤 바라문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와 서로 인사하고 위로한 뒤에 한 쪽에 물러앉아 부처님께 여쭙었다.

“고오타마시여, 이른바 부처란 어떤 것을 부처라 하나이까. 그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까. 바라문이 그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까.”
때에 바라문은 곧 계송으로 말하였다.

부처란 이 세간에서
뛰어난 훌륭한 이름이거니
그것은 그 부모가 지어
이름하여 부처라 한 것입니까.

때에 세존께서는 계송으로 대답하시었다.

부처님은 과거의 세상 보시고
그와 같이 미래 세상 보시며
또한 이 현재 세상의
일체 행의 일고 꺼짐 다 보시며

밝은 지혜로 일체를 환히 알아
닭아야 할 것은 이미 다 닭고
끓어야 할 것은 이미 끓었네.
그러므로 이름을 부처라 하네.

수많은 겁 동안 찾고 가려 보아도
순수한 고통으로 즐거움 없고
한 번 난 것 반드시 멀하고 말았네.
그러므로 때와 티끌 멀리 여의고
모든 번뇌와 가시 근본을 뽑아
일체를 바로 깨쳐 부처라 이름하네.

부처님께서는 계송을 마치시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
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물러갔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